



■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는 현장요원들



■ ‘구름기둥의 은혜’ 아래서 작업중



■ 찍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전도에 대한 도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신앙고백과 함께 주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 관심과 기도와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해주신 노원성진교회 최지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석교회 교육관 건축현장】

백선교사는 현장 감독으로 4인 1조로 한팀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러환율이 치솟고, 캄보디아 태국간 국지전으로 인해 태국에서 수입해오던 모든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령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건축자재비도 많이 오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다보니 최소 인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려고도 생각했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현장인부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 이들을 품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축현금이 더 모금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려고 했으나】

백선교사가 매일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라서 위험하지만 주유비 절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주행 중에 미끄러져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고 약간의 불편함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려고 했지만 건축현장 감독일과 사랑의 학교 툭툭이 운행,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트라우마를 안고 속도를 줄여 조심조심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학교】

스레이노이 전도사가 매일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캄보디아 글씨와 산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유치원 운영을 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초등학교에 진학시켜서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쑥행(11세)과 머이(7세)는 남매인데, 이혼한 부모가 방치하고 연로한 할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어서 저희가 양식을 제공하면서 ‘사랑의 학교’에서 가르쳐왔습니다. 다행히 잘 따라와 주어서 글씨를 깨우치고 지난 11월에는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쑥행과 머이가 학교에 다니고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을 후원해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소외된 아이들을 가르치고 쟁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캄보디아의 일꾼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는 저희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완니전도사】

완니 전도사는 신대원(M.div)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5개월 후에는 학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7월경에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완니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완니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캄보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완니가 목사고시를 준비하기에 앞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건강한 캄보디아 목사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캄보디아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까운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찰과 부처 그리고 집 앞에 찾아온 탁발승 앞에 무릎꿇고 합장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과 미신에 젖어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교회 성탄행사는 저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행사 때는 그레이스교회(정재승 담임목사)에서 보내준 다양한 물품으로 달란트 시장을 열 계획입니다. 물품을 모으는 수고와 멀리까지 보내주신 정성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1) 교육관 건축현금이 더 모금이 되고 현장인부들도 건강하게 성실히 일을 잘 감당하도록.
- 2) 완니 전도사가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목회자로 준비되어 가도록
- 3) 스레이노이 전도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학교에 헌신하도록.
- 4) 은혜롭고 뜻깊은 성탄예배와 행사가 되도록.
- 5) 백선교사가 매일 30-40분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2025년 12월 6일

캄보디아에서 백정운 유효연 선교사 올림



▣ 교육관 건축현장(25년 12월초 현재)



▣ 조촐한 성탄장식



▣ 예배 인도하는 완니 전도사



▣ 금,토 어린이 성경공부반에서 가르치는 완니 전도사



▣ 쑥행과 머이 남매



▣ 작년 성탄행사 때 전통춤 공연



▣ 톡특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